



유통가 한국 고유의 'K-힙' 마케팅 니



Life

제약바이오 주총시즌 유한양행 '회장직제' 부활 L2



“금융으로 행복을...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모델 만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이사장

금융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좋은 수단과 행복이 되기 위해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이사장(53)은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돈'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정 이사장은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운영 이사장은 금융업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교육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정운영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분야 ombudsman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심의위원,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공정금융추진위원,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태스크 포스(TF) 위원, 경기도 지역경제교육센터 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와 국제금융소비자학회(이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이사), 한국경제교육학회(이사), 한국금융교육학회(이사) 등 현장실무와 학계활동 등 명함이 많다. 명함이 많은 만큼 일 욕심도, 꿈도 많은 '위커홀릭' (개인사보다 일을 제일 우선시 하는 사람)이다.

금행넷은 우리 삶 속에서 금융이 '인풋(input)'이라면 '아웃풋(output)'은 행복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6년 설립됐고 같은 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정식인가를 받았다.

정 이사장은 “우리사회의 금융에 대한 신뢰감 회복이 절실한 상태”라며 “우리시대의 금융은 지속가능하고 다같이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좋은 수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비영리법인(NPO)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NPO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후원과 봉사 등을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이사장은 “과거에는 우리사회에 기부나 봉사에 대한 신념이 높았지만, 현재는 자기의 역량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라는 재무적인 보상만 생각하게 되다 보니 봉사와 기부의 의미도 변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어떤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낸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순수한 봉사보다는 이력에 활용하거나 코스프레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NPO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이를 잘 발전시켜 정부나 기업들이 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영리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의 비용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과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가 뒷받침해준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험적이고, 빛나는 역할을



정운영 금행넷 이사장(두번째줄 왼쪽 네번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2023 경제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운영 금행넷 이사장.



금융교육,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사회 속 '금융 신뢰감' 회복 절실해 소비자 위한 사단법인 '금행넷' 설립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전용앱 개발 취약계층 금융 역량 채워주고파 훌륭한 젊은 NPO리더 양성 목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창기 NPO는 희생정신 없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 이사장은 보람된 순간이 더 많아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자산관리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융복합금융교육과 1대 1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위한 전용 앱 개발이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금융 역량'을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은 사람살리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후계 양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회가 점점 효율적인 것

이 강조되기 때문에 밑에 세대에서 맡아서 할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대학 졸업 후 20대 중반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 전후에 NPO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하는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역량있는 훌륭한 젊은 NPO리더를 지원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금융을 제공하는데 더 전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초창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드웨어(사무실, 인력충원 등) 구축보다는 사람들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금행넷 10년을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행넷이 NPO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금융'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잘 활용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의 10년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 금융당국, 금융회사들과 소통해 역량을 더 키워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쇼트트랙 김길리, 첫 세계선수권 1500m 금 /사진 뉴시스 ▲'손흥민 침묵' 토트넘, 폴럼에 0-3 완패

▲'황희찬 결장' 울버햄튼, FA컵 8강 탈락 ▲오타니 상대 'KK'...키움 후라도, 다저스전 4이닝 4실점



▲북한, 일본 꺾고 17년 만에 U-20 여자 축구 아시안컵 우승 ▲김민재, 3경기 연속 선발 제외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